
5분 자유발언

- 고성군, '명소'와 '관광지'로 거듭나다 -



고성군의회
(허옥희 의원)

존경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허옥희 의원입니다.

저는 그동안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국내외 교육과 연수를 통해

여러 지역의 문화와 관광정책을

직접 보고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각 지역은 저마다의 특색을 살린 문화콘텐츠와

체계적인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선점을 고민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에 그동안 고성군의 문화관광시설을 이용하며

느낀 점을 바탕으로,

본 의원이 바라본 고성군 문화관광 분야의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문화가 있는 날’ 에
관내 문화시설의 무료 운영 확대를 제안드립니다.

‘문화가 있는 날’ 은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 제도에 맞춰
무료 영화관람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내 문화 소외계층이 없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모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문화가 있는 날’ 에
국공립에서 설립·운영하는 박물관과 전시관 등의
입장료를 전액 면제하는 등 폭넓은 혜택을 제공하여
문화시설 이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군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동시에
고성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으로
한 번 더 고성군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관내 박물관 등 문화시설에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을 도입하고
시설 전반의 개선을 제안합니다.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은 관광객에게
맞춤형 여행지 추천, 음식점, 교통정보 등
다양한 관광 정보를 제공하는 디지털 키오스크로서,
관광통역 안내 등 방문객에게 유용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고성군의 주요 관광지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 내부 정비를 마친 고성박물관은
외부 정비가 시급합니다.

현재 야간에 외부 간판 조명이 없어
경관 조명등의 설치가 필요하며,
외벽의 노후화로 인한 전반적인 보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셋째, 관광지 입장료와 주차료의
통합 운영을 건의합니다.

현재 당항포관광지와 고성공룡박물관 등
일부 시설에서는 입장료와 주차료가 별도로 부과되어
방문객들로부터 “이중 요금 부과” 라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방문해 봐도
관광지 입장료에 주차비를 포함하거나,
아예 주차비를 받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입장료와 주차료를 통합하여
관광객의 부담과 불편을 줄이고,
고성 관광의 이미지도 개선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공릉엑스포 기간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면서
주차 요금 징수와 관련된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릉엑스포 기간에는 우선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 곳곳에는 구절산 폭포암과 같이
잠재력 높은 명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얼마 전 폭포암을 다녀왔는데,
몇 년 전 유튜브 영상을 계기로 알려진 이후,
군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 확장과 주차장 조성 등 기반 시설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추후 이러한 기반 시설이 완비되면
비가 올 때는 자연폭포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빗물을 저장해서 내릴 수 있는 보조장치 설치로

사시사철 폭포를 볼 수 있는 명소로
재탄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의 문화와 관광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고성의 문화관광 현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시점입니다.

고성의 '명소'와 '관광지'가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군의 적극적인 정책 검토와 실행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